

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읽으며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디자이너가 사회적 윤리의식을 갖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윤리의식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다보면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심미성이 약화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가령 발표자는 바우하우스가 기능주의 디자인으로 퇴락함으로써 자본주의 논리에 흡수되었다는 관점을 지지하셨는데 그것은 바우하우스가 이룩한 예술적 성취 부분보다는 이념적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바우하우스는 현대예술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의 색채의 원리라든가, 파울 클레(Paul Klee),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선과 색의 구성에 의한 예술,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의 단순미를 극대화한 건축 등. 대체로는 현대예술에 진전을 이룩한 점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우하우스가 “삶을 폐쇄적이고도 자율적인 기능체로 변모”(p.7)시켰다거나 “물질의 소유로 인간의 행복을 계량화했다”(박사논문)는 시각은 좀 가혹한 게 아닐까요? 혹시 디자인이 상업주의에 물든 디자인 운동으로 적합한 예가 따로 있지 않을 런지요. 이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본 논문에선 ‘일차적인 아름다움’과 ‘이차적인 아름다움’의 차이를 각각 논의하였지만 아름다움의 속성에 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아름다움과 달리 에드워즈가 말한 ‘일차적인 아름다움’은 매우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미학 연구가인 롤랑 들라뜨르(Roland A. Delattre)에 따르면, 에드워즈의 ‘일차적 아름다움’의 특성은 ‘아름다운 존재’(being beautiful) 자체보다 ‘주는 아름다움’(bestowing beauty)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본 것입니다. ‘주는 아름다움’은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흘러넘치게 한 것으로 그의 저작에서 애용되는 ‘확산’, ‘발산’, ‘전달’, ‘흘러넘치기’, ‘나타내기’ 등은 이와 같은 성격을 나타내주는 용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름다움을 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에드워즈의 아름다움은 운동적이고 침투적이며, 상대에 반응하는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주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사회책임’을 다한다거나 ‘덕’을 회복하는 것 외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법한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 영화 <버킷 리스트>에 나타난 죽음준비교육으로서의 버킷 리스트의 의미와 역할

강진구(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부 기독교영상콘텐츠전공 교수)

### I. 서론- ‘버킷 리스트’ 유행을 타는 한국사회

로브 라이너(Rob Reiner) 감독의 영화 <버킷 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Bucket List>(2007)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식을 드러내는 매우 흥미로운 영화다. 잭 니콜슨(Jack Nicholson)과 모건 프리먼(Morgan Freeman)이라는 할리우드의 관록 있는 배우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 영화는 2008년 1월 11일 미국 개봉당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을 만큼 미국사회에서는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sup>218)</sup> 그러나 대중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영화평론가들로부터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2013년 4월에 타계한 미국의 저명한 영화평론가인 로저 에버트(Roger Ebert)는 앞으로 시한부인생을 사는 두 노인들이 죽기 전에 할 일들을 종이에 적어 세계를 돌아다니며 실천하는 영화의 내용들이 지극히 비현실적이란 사실을 그의 리뷰에서 언급했다. 그는 이 영화의 유일한 미덕을 모건 프리먼의 놀라운 연기를 꼽았을 뿐이었다. 심지어 “영화를 보고난 후 병원에서 바로 전화해서 절대로 환자들에게 이 영화의 DVD를 보여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용 번기가 TV화면이 던져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는 비평을 남기며 단지 별 한 개의 평점만을 주었을 뿐이었다.<sup>219)</sup>

한국의 경우는 흥행과 비평 모두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미국의 대형 영화사인 워너 브러더스가 한국에서도 지명도 높은 배우들을 기용해서 제작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에 개봉하여 전국적으로 284,360명의 관객을 동원하는데<sup>220)</sup> 그쳤다. 영화평론가 박평식은 영화전문 잡지 ‘씨네21’에서 “눈요깃거리에 묻힌 베테랑의 관록”이라는 짧은 비평을 남겼는가 하면, 최하나 기자는 “그들 생애 마지막 여행은 전용기를 이용한 초호화 세계 일주다. 여행사 CF를 찍듯이 세렝게티 초원, 타지마할, 만리장성, 이집트 피라미드를 숨 가쁘게 순회하는 여정은 지극히 피상적이고, 실컷 호사를 누리다가 갑작스레 가족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결말은 억지스럽다.”는 다소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sup>221)</sup>

218) 미국의 상업영화 수익성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박스오피스 모조(BoxOffice Mojo)에 따르면 <버킷 리스트>의 미국내 수익은 93,466,502 달러이고, 외국에서의 실적은 81,906,000달러로 총 175,372,502달러의 공식 기록을 가지고 있다. <http://www.boxofficemojo.com/movies/?id=bucketlist.htm>

219) 로저 에버트의 개인 홈페이지에는 그가 지금까지 영화평론가로 활동했던 시카고 선 타임즈(CHICAGO SUN-TIMES)에 게재된 그의 평론들이 수록되어 있다. 로저 에버트는 2013년 4월 4일,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http://www.rogerebert.com/reviews/the-bucket-list-2008>

220) KOFIC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mast/mvie/searchMovieList.do>  
2008년 4월 9일부터 전국적으로 최대 70개의 스크린을 확보하며 상영되었다. 2008년 당시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둔 작품은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6,684,933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그러나 영화의 흥행 성적이나 전문적 비평과 관계없이 이 영화가 한국사회의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말기 암에 걸려 죽음을 앞 둔 영화 속 두 주인공들이 보여준 것이 비단 죽기 전 하고 싶은 소원성취 여행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아울러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영화 개봉 후 관심을 보인 곳은 TV와 출판 등 매스미디어 분야였다. SBS-TV는 2011년 7월 23일부터 주말연속극으로 총 16부작에 걸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한국판 ‘버킷 리스트’라 할 수 있는 <여인의 향기>를 방송하여 큰 인气和 더불어 한국 사회 곳곳에 버킷 리스트 작성에 대한 큰 관심을 일으켰다.<sup>222)</sup> 출판계도 마찬가지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여행 1001> 등과 같이 ‘죽기 전에’를 붙여서 중요성과 긴박감을 고조시킨 서적들이 잇따라 출판되기도 했다.<sup>223)</sup> 그러나 상업성 짙은 대중문화계와는 달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대학수업과 사회교육기관 등에서도 ‘버킷 리스트’는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버킷 리스트의 본래 작성 의도가 영화에서처럼 죽음 앞에 선 인간이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삶의 기쁨과 의미를 얻고자했던 것이었지만, 버킷 리스트 열풍이 불면서 한국사회에서는 말기 상태나 연령과 상관없이 이루고 싶은 꿈을 적는 것으로 다소 변형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갖는 관심과 의미는 적지 않다. 한국정책방송(KTV)의 2013년 조사에도 따르면 10대 이상 성인남녀 52.5%는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좋은 현상이라고 답을 했다.<sup>224)</sup> 버킷리스트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니라 개인적 삶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영화 <버킷 리스트>와 영화의 소재가 된 ‘버킷 리스트’의 현실적 의미를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일이다. 단순한 소망을 적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처럼 죽음이라는 전제조건 앞에서 행해지는 버킷 리스트일 경우 보다 인생에 뜻 깊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영화 <버킷 리스트>와 이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이 실행하는 ‘버킷 리스트’ 작성이 죽음준비교육으로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영화 속에 등장한 두 주인공의 죽기 전 삶의 행태와 그들이 진행하는 버킷 리스트가

221) 최하나, “소원성취 세계여행-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씨네21』 648호, 2008년 4월 8일자 [http://www.cine21.com/movie/info/movie\\_id/23539](http://www.cine21.com/movie/info/movie_id/23539) 참고.

222) 드라마 <여인의 향기>는 토·일 방송된 주말연속극으로 편성되어 2011년 7월 23일부터 9월 11일 종영될 때까지 16부작으로 방송되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여행사 말단 여직원인 이연재(김선아 분)와 그녀를 사랑하는 여행사의 젊은 대표 강지욱(이동욱 분)과의 로맨틱한 사랑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극중 이연재가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한가지씩 실천하는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재미와 감동을 받았다는 평가가 있다. [tv.sbs.co.kr/scent/](http://tv.sbs.co.kr/scent/)

223) 2013년 4월 21일 현재,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의 검색창에는 ‘죽기 전에~’란 제목을 단 서적과 음반 DVD가 무려 120여 종이 검색되고 있다. 대부분이 영화 <버킷 리스트> 이후에 발매되고 있는 것들이다.

224) 2013년 2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KTV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0대 이상 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로 동시에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 3.7퍼센트 포인트이다. “국민 52.5% ‘버킷리스트’, 좋은 현상”, KTV 「굿모닝 투데이」, 2013년 3월 4일 방송 <http://www.ktv.go.kr/program/contents.jsp?cid=457091>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해본다. 둘째는 버킷 리스트가 죽음에 대한 긍정심리를 조성하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존 연구자들의 조사와 대학생들의 영화감상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 II. 본론-〈버킷 리스트〉의 특징과 구조

영화 <버킷 리스트>는 말기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두 노인이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함께 계획하고 경험하는 생의 마지막 여행과 그 과정 속에서 얻는 노년의 우정과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드라마다. 역만장자 에드워드 콜(잭 니콜슨 분)은 결코 1인용 병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자신이 설립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리공으로 평생을 살아온 카터 챔버스(모건 프리먼 분)와 병실을 나눠쓰는 일이 벌어진다. 서로 다른 환경과 성격 차이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은 잠시 뿐 에드워드는 카터가 대학시절 철학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버킷 리스트를 작성한 것에 자신의 버킷 리스트를 덧붙여서 죽기 전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완성한다. 영화에서 말하는 ‘버킷 리스트’는 그 어원이 중세 시대 교수형 집행 방법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사형수는 올라가미를 목에 건 후 양동이(bucket)에 올라서면 사형집행관이 이 양동이 걸어참으로써 사형수의 목이 밧줄에 깨달려 질식사할 유도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동이를 걸어치는 ‘kick the bucket(버킷을 킥하다)’은 ‘죽다’라는 뜻을 가진 속어로 사용되어 왔고, 버킷 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sup>225)</sup>

### 1. 영화 <버킷 리스트>의 장르적 특징

<버킷 리스트>는 전통적인 할리우드의 흥행공식에 이변을 일으킨 영화다. 블록버스터 급의 영화인 것은 맞지만, 주인공이 노인이란 점과 주인공의 죽음을 통한 마무리의 흥행의 불문율로 여겨지는 ‘해피 엔딩’의 정형화된 공식에서 벗어나있다. 스타시스템 체계를 적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스타 두 사람의 나이는 일흔을 넘긴 노인들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드가 모랭이 그의 책 ‘스타’에서 밝혔듯이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스타들이 갖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젊음’이다. 실제 나이도 젊을 뿐만 아니라 비록 나이가 있더라도 젊은이들이 맞는 사랑과 액션의 영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었다. 그런데 <버킷 리스트>는 노인을 주인공으로 노년의 삶을 다루고 있다. 흔히 스타의 대중성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미모나 성적매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인 셈이다. 거기다 두 남자의 동행 가운데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버디 무비(Buddy Film)’의 성격을 지니지만 이 장르에서 흔히 제공되는 남성미 넘치는 액션은 등장하지 않는다. 할리우드의 흥행공식을 가장 위반하는 사항은 두 주인공의 죽음을 묘사하는 일이다. 노인이며 말기암 환자라는 설정은 관객들에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지만, 주인공의 죽음을 목격하는 일은 할리우드 상업적인 영화들 안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버킷 리스트를 작성한 주인공들이 그것을 하나씩 실천

225) 두산동아대백과사전의 ‘버킷 리스트’ 항목 참고.

해가며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룸으로써 말기암의 위협을 물리친 인간승리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할리우드의 정형화된 공식을 대입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결말이다. 그러나 <버킷 리스트>는 목록 가운데 한가지는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관객들은 주인공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할리우드는 기적을 일상화 하는 곳이다. 메이드인 할리우드 표식을 달았다면 말기암이라는 위기의 순간에서 사악한 암덩어리를 물리치는 치료의 영웅이 등장하거나, 환자 스스로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이 영웅이 되는 인간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더 자연스럽다.

물론 <버킷 리스트>가 비극적 결말을 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을 회피함으로써 소생의 기쁨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서 인생의 기쁨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해피 엔딩'의 모습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의 죽음은 곧 비극이며 슬픔의 정서를 관객에게 안겨준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무너뜨리고 주인공의 죽음이 영화 안이나 밖의 존재들에게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거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긍정적인 정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인공이 맞이하는 '행복한 죽음'에 대한 관객의 심리적 동화 혹은 '감정적 전이'로부터 나온다. 영화에 몰입하는 관객들은 주인공에게 자신을 투사하며 동시에 주인공이 겪는 정서를 함께 경험한다. 일반적으로는 주인공의 죽음이 가지는 상실과 소멸로부터 일어나는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전이되기 쉽지만, 영화 속 죽음이란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는 죽음에 대한 긍정의 심리를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로브 라이너 감독이 주인공들의 '행복한 죽음'을 관객들에게 죽음에 대한 긍정적 심리로 유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영화의 형식을 드라마와 코미디 장르를 혼합한 일이다. 드라마는 주인공이 겪게 되는 갈등의 상황을 전개시키는 역할을 하고, 코미디는 죽음을 앞둔 두 주인공의 유쾌하면서도 과격적인 경험을 통해 죽음이라는 소재가 어둡거나 무겁게 느끼지 않게 만든다. 둘째는 영화의 중심 내용을 이루는 '버킷 리스트'의 실행이 가져오는 주인공들의 긍정적 변화에 있다. 죽음에 맞서 투쟁하기 보다는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남은 삶에서 행복을 누리는 일이다. 이것은 버킷리스트가 죽음을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 2. 구조적 특징

영화 <버킷 리스트>는 내용상 두 가지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하나는 두 주인공이 계획한 버킷 리스트를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일이 한 축을 이루고, 다른 하나는 주인공들을 둘러싼 가족과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또 한축을 형성한다.

'장엄한 광경 보기'에서 아프리카 '세링게티에서 호랑이 사냥'에 이르기까지 십여 개 남짓 되는 목록들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마치 없어서 세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 이것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 리스트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비평가들로부터 가장 비현실적이라는 지탄을 받는 일이기도 하다. 즉 민족과 나이 성별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의 버킷 리스트 위쪽에 항상

올라있는 항목은 '세계 일주 여행'이다.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공간을 떠나서 죽기 전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보고 싶은 욕망은 살아있을 때의 즐거움인 동시에 만족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조건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을 정해서 움직이고 최고급호텔에 머물며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는 커피인 '코피 루왁(Kopi Luwak)'을 마시며 마지막 남은 생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는 주인공을 둘러싼 환경과 인물들이 엮어가는 이야기들이 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많은 돈을 가진 부자지만 네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에드워드 콜에게는 외로움이라는 환경이 둘러싸고 있고 결별을 선언한 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딸이 하나 있다. 여행을 함께했던 카터가 이 사실을 알고 죽기 전에 딸과의 화해를 도모하려 하지만 에드워드는 이에 대해 역정을 낼 뿐 딸을 보고 싶어 하는 속마음을 실천해 옮길 줄 주지한다. 에드워드와는 달리 카터 챔버스는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단란한 가족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평생 동안 여자라곤 오직 아내 한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왔고, 아내 또한 남편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다. 여행 중에 에드워드는 카터가 죽기 전에 색다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여자와의 은밀한 사랑을 계획하지만 카터의 진실한 아내 사랑에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 행복한 죽음에 이르도록 돕는 버킷 리스트에서 윤리성이 갖는 의미를 제시해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즉 곧 죽을 것이라는 의식이 윤리적 입탈을 일삼으며 막 태먹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에게 신뢰 받는 카터는 에드워드와 달리 자녀와의 불화도 영화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서로 대조되는 두 주인공들의 주변상황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영화는 두 주인공이 식탁을 대하는 서로 다른 모습을 비추준다. 에드워드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억만장자에게 어울릴 만한 현대적으로 지어진 커다란 주방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저녁식사로 조리대 위에 올려놓은 것은 테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깡통에 든 인스턴트식품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제대로 뚜껑이 열리지 않아 에드워드는 화를 내며 깡통을 집어 던진다. 그는 부자지만 집안에는 그 혼자였고 저녁식사를 함께 할 가족은 보이지 않았다. 카터의 경우는 다르다. 식탁 주위에는 카터 부부뿐만 아니라 출가한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함께 앉아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식사기도를 하고 즐겁게 음식을 나눈다.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때 꿈꿔왔던 3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식탁의 전형이다. 어른의 식사기도에 이어서 뜨거운 오븐요리가 가족들의 손에서 손으로 돌아가고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한 소박하지만 행복으로 가득 찬 집안 풍경이다.

우리는 영화가 대리만족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음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영화는 관객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며, 꿈꾸던 것들을 스크린 위에 펼쳐놓는다. 전용제트기를 타고 아침을 로마에서 먹고, 낮에는 이집트 피라미드에 오르고 다음 날 저녁에는 홍콩의 야경을 감상하며 저녁식사를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꿈을 꾸고 영화는 그 꿈을 재현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원하는 꿈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인간은 꿈을 꿀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이다. 꿈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현실적이나 아니면 비현실적이냐에 있지 않다.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행복

하지 않은 꿈을 꾸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 III. 버킷 리스트 의미 분석

대학시절 연인이 임신하는 바람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대학교수의 꿈을 접어야 했던 카터 챔버스는 암투병을 위해 입원한 병실에서 대학시절 철학과교수가 가르쳐준 버킷 리스트를 작성한다. 그가 처음 종이에 작성한 버킷 리스트는 4가지이며 이 종이를 발견한 에드워드 콜은 당장 실현하자면서 6가지를 더 추가하여 10개를 만들었다. 리스트 가운데 8번의 경우 로마와 피라미드 타지마할이 완전히 다른 대륙에 있는 만큼 독립된 세 가지의 목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영화 속에서는 하나의 번호 안에 묶여서 쓰여 있고 각각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하나의 목록 안에 배열했다.

영화 속에서 두 주인공이 버킷 리스트를 작성할 때 특별한 사연이나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즉 심사숙고 끝에 작성된 목록이라기보다는 다만 두 사람의 성격이 반영되었으며, 5-10번의 경우 에드워드가 즉흥적으로 쓴 것이다.

카터가 쓴 버킷 리스트는 자동차 정비사로서 평생을 단란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온 그의 성격과 인생을 나타낸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하고, 친절하며 낙천적이다. 특히 정비사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은 직업적 특성도 그의 버킷 리스트에 나타난다.

에드워드 콜의 버킷 리스트는 세속적이며 괴짜인 억만장자의 개성을 드러낸다. 부자가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열되어 있고, 4번이나 이혼할 만큼 여성편력을 드러내는 목록도 눈에 띈다. 특히 노인들이 좀처럼 하지 않는 모험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목록들은 젊은 날 하지 못했던 까닭에 죽기 전이라도 해보고 싶은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1〉영화 〈버킷 리스트〉에 제시된 ‘버킷 리스트’

버킷 리스트 내용	작성자
①. 장엄한 광경보기 ②. 낯선 사람 도와주기 ③. 눈물 날 때까지 웃기 ④. 무스탕 썰미로 카레이싱	카터 챔버스
⑤.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⑥. 영구문신 새기기 ⑦. 스카이다이빙 ⑧. 로마, 피라미드, 타지마할 보기 ⑨. 오토바이로 만리장성 질주 ⑩. 세링게티에서 호랑이 사냥	에드워드 콜

이 10가지 목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영화 속 주인공들이 이집트 피라미드에 올라 나는 대화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카터는 에드워드에게 고대 이집트인들이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 영혼이 하늘에 가면 신으로부터 두 가지 질문을 받는데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 이다.<sup>226)</sup> 버킷 리스트는 단순히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뜻 한다기보다는 삶의 기쁨을 찾기 위한 마지막 계획이며 선택이다. 영화 속 주인공이 작성한 10가지 버킷 리스트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후에 있을 것이라 믿었던 질문의 영역에 따라 분류하자면 하나는 자신을 위한 기쁨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의 기쁨을 위한 영역이다. 이 때 카터가 제안한 목록 2번의 ‘낯선 사람 도와주기 (help a complete stranger for the Good)’ 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모두 자신을 위한 기쁨에 해당한다.

‘낯선 사람 도와주기’ 는 에드워드가 카터의 장례식장에서 조사(弔詞)를 마친 후 버킷 리스트를 적은 종이를 꺼내 해당 항목을 지우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죽은 친구를 위해 조사를 한 일 자체가 ‘낯선 사람 도와주기’ 로 해석할 수 있지만, 카터의 조사를 잘 헤아린다면 친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는 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카터의 조사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다.

“석 달 전만 해도 우린 생판 남이었는데, 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의 생애 마지막 시간은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날 구원했죠.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뿌듯한 건 이 친구가 날 만난 보람이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서로의 삶에 기쁨을 준 셈이죠.”

서로 몰랐던 사람이 만나서 ‘버킷 리스트’ 를 함께 실행하는 가운데 카터와 에드워드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었고 ‘낯선 사람 도와주기’ 항목은 이렇게 실현될 수 있었다.

결국 영화에 등장한 ‘버킷 리스트’ 는 자신과 타인의 기쁨을 누리는 일에 몰입함으로써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버킷 리스트와 죽음의 긍정심리

긍정심리는 행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이다. 긍정심리학이 태동되기 이전의 심리학의 중심이 주로 정신질환과 같은 이상심리현상을 밝혀내고 그것의 원인과 치료연구에 몰두한 반면, 긍정심리학은

226) When you die you're asked two questions, and your answers determine whether or not you'll get into heaven: Have you found joy in life? and Has your life brought joy to others?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목적에 맞춰 심리학적 관점에서 행복의 원리와 작용을 연구한다.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돕는 긍정심리를 죽음에 대입하여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는 일본 소피아대학교의 알폰스 디켄(Alfons Deeken) 교수다. 그는 호스피스운동의 선구자이자 죽음의 심리학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sabeth Kübler-Ross)의 ‘죽음의 5단계’로부터 발전시킨 새로운 단계를 밝혀내어 호스피스운동에서 종교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바 있다. 퀴블러 로스 박사가 말기 암 환자가 겪는 심리의 5단계인 ‘부인-분노-타협-우울-수용’이라는 현상을 통해 죽음을 앞에 둔 환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관한 지식을 제공했다면, 디켄 교수는 말기암 환자들이 단순히 죽음의 수용이라는 소극적 심리단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죽음에 임하는 긍정적 심리의 단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것은 ‘기대와 희망(anticipation and hope)’이라는 여섯 번째 단계다. ‘기대와 희망’은 주로 사후생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가진 종교인들에게서 나타난다. 기독교인의 경우 죽음 이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신앙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자세이기도 하다. 마치 어린 아이가 다음 날 소풍갈 것을 알고 잠자리에 드는 심정이 ‘기대와 희망’을 설명하는 적절한 예라 할 수 있다. 잠을 자야만 아침이 오고 즐거운 소풍을 갈 것을 아는 어린 아이들은 잠들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풍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잠들기를 기다린다. 알폰소 디켄은 ‘행복한 죽음’이라는 용어로 이것을 설명한다. 죽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상이지만, 이미 기독교의 교리와 역사 안에서 드러난 일이다.<sup>227)</sup>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긍정심리학이 추구해왔던 행복한 인생의 최고점에 위치해 있다. 죽음에 대한 긍정심리를 갖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발상은 죽음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며 무(無)로의 전환이라는 지금까지의 통속적인 부정적 관념과 심리에 대한 혁명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종교의 신비적인 특별한 체험으로만 해석하여 개인 신앙의 영역에만 가두어 두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종교인의 심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목적과 부합될 때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긍정심리는 자살이나 안락사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우며 현실로부터의 도피와도 다르다. 영화 <버킷 리스트>를 주목하고 ‘버킷 리스트’ 작성이 행복한 죽음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영화 속 주인공들이 긍정의 심리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현하는 과정 가운데서 형성되는 긍정심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도록 만든다. 긍정심리학의 대표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이 행복한 인간이 되기 위해 제시한 ‘미덕과 강점’을 영화 <버킷 리스트> 속의 ‘버킷 리스트’와 비교하며 버킷 리스트가 어떻게 긍정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일은 흥미로운 수 있다.

마틴 셀리그만 진정한 행복은 개인의 강점을 파악하고 계발하여 일, 사랑, 자녀 양육, 여가

227)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스테반의 죽기 직전의 모습을 성경은 ‘천사의 얼굴’로 기록하고 있다. 주변의 상황에 관계없이 기독교 신앙이 ‘행복한 죽음’과 어떻게 연관성을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행6:15)

활동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실현된다고 말한바 있다.(Seligman, Martin E.P, 2004) 긍정심리학 연구의 핵심은 개인의 강점과 미덕을 파악하여 이것을 장려하고 긍정적 정서를 활발히 개진시키는데 있다. 개인의 강점과 미덕은 동서양의 현자들이 이상적 인간상을 논할 때 언급된 내용들로써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덕목인 것이다. 셀리그만은 여섯 가지의 미덕과 또 이를 보다 세분화한 24가지의 강점을 제시하며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조건들을 분류해냈다.

<표2>마틴 셀리그만의 6가지 미덕과 24가지 강점

6가지 미덕	지혜와 지식	용기	사랑과 인간애	정의감	결제력	영성과 초월성
24가지 강점	1. 호기심 2. 학구열 3. 판단력 4. 창의성 5. 사회적 지능 6. 예견력	7. 호연지기 8. 끈기 9. 지조	10. 친절 11. 사랑	12. 시민 정신 13. 공정성 14. 지도력	15. 자기 통제력 16. 신중함 17. 겸손	18. 감상력 19. 감사 20. 희망 21. 영성 22. 용서 23. 유머 감각 24. 열정

<표2>에서 제시된 6가지 미덕과 24가지 강점은 죽음을 앞둔 <버킷 리스트>의 두 노인들의 목록과 부합되는 면들이 있다. <표1>의 영화 <버킷 리스트>에 제시된 ‘버킷 리스트’의 항목들을 셀리그만의 24가지 강점에 맞추어 해석하자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긍정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지혜와 지식’의 미덕에 해당하는 ‘버킷 리스트’는 ④무스탕 셀비로 카레이싱 ⑥영구문신 새기기 ⑦스카이다이빙 ⑧로마, 피라미드, 타지마할 보기 ⑨오토바이로 만리장성 질주 ⑩세링게티에서 호랑이 사냥 등 상당수의 항목들이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주인공들은 삶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병실을 박차고 나간다. 그것은 모험이지만 죽음을 앞두고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끝에 나온 ‘판단력’의 결과일 수 있다. 또한 병위 위중하게 되면 병실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예견력’과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 전체를 끌어갈 뿐만 아니라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내용은 ‘영성과 초월성’이라는 미덕 안에서 구현된다. ①장엄한 광경보기의 경우는 ‘용기’라는 미덕의 ‘호연지기’에 해당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자연의 장엄함이란 신 혹은 창조자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들며 인간의 겸손함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영성과 초월성’ 미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②낯선 사람 도와주기와 ③눈물 날 때까지 웃기 ⑤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는 각각 ‘영성’과 ‘유머 감각’ 그리고 ‘용서’와 잘 맞아떨어진다.

영화의 주인공들이 죽음을 맞이하며 행하는 여행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모습들은 행복한 인간을 만드는 요소들이 내재해있기 때문이었다. 의도적인 연출일 수도 있지만 두 주인공의 모습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며 삶에 대한 성찰을 이루

는 모습이 담겨있음은 죽음에 대한 긍정심리적 특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V. 죽음준비교육으로서의 버킷 리스트

한국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은 1973년 덕성여대와 1979년 서강대 등 대학을 중심으로 출발하였다.(이이정, 2003) 학문적 이해가 아닌 실질적 적용을 위한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은 1990년 덕성여대 부설 평생교육원과 1991년 창립된 각당복지재단 산하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을 필두로 본격화 되었다.<sup>228)</sup>

죽음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개되어 왔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sup>229)</sup>

흥미로운 점은 죽음준비교육의 방법가운데 '버킷 리스트'가 활용되고 있는 사실이다.<sup>230)</sup> 교육의 목표는 첫째 다가 올 죽음에 한 인식, 둘째 지나 온 삶에 대한 회상, 셋째 새로운 삶에 대한 과제를 통하여 웰 다잉의 삶을 소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과 지지와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sup>231)</sup> 궁극적으로 죽음을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돕고 더욱 가치있는 남은 삶을 살도록 지혜를 나눈다. 교육순서는 먼저 영화 <버킷 리스트>를 관람하고, 또한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죽음준비교육이 목표로 하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고 있다.

죽음준비교육이 아니더라도 버킷 리스트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크지만 막상 이것을 해본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다.<sup>232)</sup> 버킷 리스트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심리가 발현됨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긍정심리가 목표로 삼는 행복이 인간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다른

228)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부속기관인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는 1991년 6월 13일 김동길 교수(죽음의 의미, 죽음의 철학, 나의 생사관)와 김인자 교수(죽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의 강의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 까지 '삶과 죽음 필요강좌' 및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죽음준비 지도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www.kakdang.or.kr

229) 죽음준비교육을 가장 체계있게 진행하는 각당복지재단의 대표인 김옥라는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왜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한가? 1)인생을 재인식하고자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정되어 T는 현실을 재인식 2)죽음기피와 공포심을 불식하기 위하여 -죽음기피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자유스러운 사고력을 수박한다. 죽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없으면 진정한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 3)인생의 가장 큰 난제가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간의 심층심리 속에 깔려있다. 김옥라 위음 (1994). 『왜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한가?』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자료집.

230)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2002). 『웰다잉 지도자 교육과정』 교재.  
전국 웰다잉지도자 양성과 웰다잉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6개 지역에서 15회의 강의와 실습과정으로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231) 앞의 책, 127쪽

232) 자기만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나 만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섯 명 중 네 명에 가까운 응답자가 없다고 답했다. “국민 52.5% ‘버킷리스트’, 좋은 현상”, KTV 「굿모닝 투데이」, 2013년 3월 4일 방송 <http://www.ktv.go.kr/program/contents.jsp?cid=457091>

하나는 실제 버킷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에게서 긍정심리를 발견하며 죽음에 대한 바른 성찰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첫 번째의 경우는 이미 긍정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이 있다.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UCR) 심리학과의 소냐 류보머스키 교수는 그녀의 책 <How to be happy: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에서 인간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언급했다. 임상실험결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유전적 설정값'이 5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의도적 활동' 즉 행복해지려는 노력과 같은 것이 40%,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환경'은 불과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돈이나 미모 그리고 결혼여부 까지도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불과 10%의 역할 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밝고 낙천적인 성격과 같은 유전적 기질은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는 40%를 차지하는 우리가 취하는 행동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한 일을 적는 것'과 '용서받거나 용서할 내용을 적은 것'과 같은 버킷 리스트는 우리에게 행복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목록으로 '감사'가 들어있다면 이 보다 더 행복한 죽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감사와 정신의학과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감사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존감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긍정심리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감사하는 사람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버킷 리스트와 연관된 흥미로운 보고도 있다. 1985년 미국 코넬대 철학과 2학년 학생 32명은 영문도 모르는 채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였다.<sup>233)</sup> 그 중 성실하게 응한 사람이 17명이었고, 백지를 내거나 무성의하게 작성한 사람들도 15명이나 되었다. 15년이 지난 뒤 캐비닛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32명의 버킷 리스트는 각각의 주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32명 중 생존한 29명의 신상이 파악되었는데 이 가운데 사회 지도자급에 오른 사람은 18명 이었고 놀랍게도 이 가운데 버킷 리스트를 성실하게 작성한 사람이 16명이나 되었다. 즉 버킷 리스트를 제대로 쓴 17명 가운데 16명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버킷 리스트를 성실하게 작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재산도 평균 2.8배가 많았고 이혼 경험 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것은 '버킷 리스트'가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자기계발의 기능을 수행 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정의 안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점은 버킷 리스트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 문제는 명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다. 버킷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과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는 실험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나 긍정심리의 주요 요소들이 <버킷 리스트>영화를 보고 또한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작성자들이 느낀 소감을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기대감을 확인할 수는 있다.

233) 코넬대 학생의 버킷 리스트 이야기는 모두 『꼭 이루고 싶은 자신과의 약속 버킷 리스트』에 수록된 것을 인용하였다. 강창균·유영만(2011). 『꼭 이루고 싶은 자신과의 약속 버킷 리스트』. 서울: 한국경제신문

아래의 조사는 2012년 2학기 수업으로 '영화와 함께하는 죽음학' 을 수강한 학생들 가운데서 영화 <버킷 리스트>를 본 후 자신의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며 제출한 보고서 안의 글들을 수록한 것이다. 사전에 버킷 리스트 작성과 긍정심리 간의 연구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단지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고 영화와 자신이 버킷 리스트를 쓰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솔직하게 적게 했다. 보고서를 제출한 3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서 성실하게 다섯 학생을 선별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학생들 가운데서 영화나 버킷 리스트 작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학생은 단 한명도 없으며 단지 충실하게 썼는지만을 검사하여 선별하였다.

〈표3〉고신대 학생들의 버킷리스트

번호	학번	이름	버킷리스트
1	2012**** *	장**	①사랑하는 사람과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에게 미쳐보기 ②내 이름으로 책 한권 내보기 ③작곡 배우기 ④부모님과 함께 호화로운 여행하기 ⑤마다가스카르 걸어서 여행 다니기 ⑥입양센터나 고아원 운영하기 ⑦감사의 목록 천 가지 적기 ⑧하루 종일 슬픈 영화 보고 울거나 즐거운 영화 보며 배꼽 빠지게 웃기 ⑨넓은 마당에 반려견 키우기 ⑩봄 비 내리는 날 벗꽃 길을 연인과 함께 우산 없이 뛰어보기
2	2012**** *	오**	①파워 블로거 되기 ②자장가 10개 언어로 배우기 ③실제 상영될 영화포스터 제작 ④전문가 인터뷰 요청받기 ⑤밴드 소속해서 공연해보기 ⑥내 입맛에 맞는 김치 담그기 ⑦캐릭터 100개 만들기 ⑧로고 100개 만들기 ⑨슈퍼주니어 강인과 사진찍기 ⑩어플만들기
3	2012**** *	선**	①전국 투어 하기 ②배낭여행 가기 ③결혼해서 신혼생활하기 ④부모님 짐사드리기 ⑤기타 잘 치기 ⑥자전거 배워서 자전거여행 하기 ⑦하루 종일 영화관에서 영화보기

			⑧선교여행 가기 ⑨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기 ⑩내 삶에 관한 책쓰기
4	2008**** *	옥**	①대가족이 살 수 있는 집 만들기 ②기부하기 ③50살에 남편과 나이가가라 폭포 가보기 ④할아버지 할머니 용돈 드리기 ⑤친구들과 유럽여행 ⑥48Kg만들기 ⑦중국에서 직장다니기 ⑧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밥사기 ⑨부모님 전도하기 ⑩한 끼 식사에 백 만원 써보기
5	2012**** *	하**	①대학 4년 안에 장학금 왕창받기 ②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③복층 집에서 살아보기 ④내가 디자인 한 집 만들어 보기 ⑤세계일주하기 ⑥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쓰기 ⑦하루 종일 찬양하고 예배하기 ⑧좋은 상담사가 되어 살아갈 동안 만 명 이상 청소년, 청년들과 상담하기 ⑨친한 친구들 전도하기 ⑩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모'라는 말 들어보기

사람마다 버킷 리스트가 다를 수 밖에 없지만, 〈표3〉에 수록된 학생의 사례는 고신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버킷 리스트의 평균에 가깝다. 학생들이 제출한 '버킷 리스트' 가운데는 '호주의 누드비치에 가서 수영해보기' 나 '자장가 10개 언어로 배우기' 같은 특이하고 기발한 것들도 있지만 전체 구조를 볼 때 유사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학생들은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다만 '세계일주여행' 처럼 통 큰 학생이 있는가하면, 아프리카 종단여행이나 파리 구석구석 돌아보기와 같이 세부적인 장소를 지정해 놓은 것만이 다를 뿐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1번 장\*\* 학생의 버킷 리스트를 분석해 보면 긍정심리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1번 장\*\* 학생의 버킷 리스트에는 영화 〈버킷 리스트〉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목록들이 10개 중 8개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④번과 ⑥번 두 개가 있다. 이 학생의 버킷 리스트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은 '⑦감사의 목록 천 가지 적기' 다. 이것은 '버킷 리스트' 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긍정심리를 갖도록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버킷 리스트〉를 보고 자신의 버킷 리스트를 작성한 후 밝힌 학생들의 소감에는 버

킷 리스트가 죽음준비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고신대 학생들이 영화 〈버킷리스트〉를 본 후 소감문

번호	학번	이름	소 감
1	2012**** *	장**	이 영화로 인해서 내 인생에 있어 <b>터닝 포인트</b> 를 만들고자 한다. 나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생길 때 마다 요목조목 적어서 거대한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고 싶다. 왜냐하면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좀 더 알찬 순간 순간을 보낼 수 있고 <b>충실</b>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말이다
2	2012**** *	오**	나는 영화를 보자마자 나의 버킷리스트를 100가지 정도 작성하고 보니,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과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거짓말처럼 드러났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영화 속에서 에드워드와 카터에게 있어 죽음이란 어떤 의미일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갈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죽음은 그다지 반가운 존재는 아님이 확실하다. 하지만 그들에 있어 <b>죽음은 또 다른 의미</b> 가 있다. 죽음이 그들 앞에 닥쳤기 때문에 그들의 버킷리스트는 더 의미가 있었다.
3	2012**** *	선**	이 영화를 보고 난후 나는 나 자신을 <b>겸손</b> 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만약에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마무리 하게 될까? 내가 언제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하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b>최선</b> 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보리라 다짐한다.
4	2008**** *	옥**	이 영화를 보면서 아직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닌 나를 만난다면 즐겁게 살라고 말해주고 싶고, <b>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b> 말해주고 싶다. 지금 내가 이렇게 믿듯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영화를 통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싶다는 생각뿐 아니라 영화 두 주인공의 우정도 부러워 해보고 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b>행복</b> 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5	2012**** *	하**	나도 버킷리스트를 써보면서 몇 가지 <b>감사</b> 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내가 앞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됨에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저 흐지부지 부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마지막 감사는 내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늦지 않는 때에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모든 버킷리스트를 하나씩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	--	--

학생들의 버킷 리스트 소감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긍정심리를 엮보게 하는 단어들이다. 충실이나 최선, 겸손 그리고 감사와 행복 등은 학생들의 심리에 버킷 리스트가 의미 있는 작용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VI. 결론-그리스도인과 버킷 리스트

2010년 영국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란 연구기관이 OECD 30개국을 포함한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죽음의 질(The Quality of Death)'을 조사한 일이 있었다. '죽음의 질'이란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품격있는 죽음을 맞고 있는가를 뜻하는 것으로 죽음의 질을 높이는 상태를 우리는 웰다잉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뜻밖에도 최하위권인 32위로 평가되었다.<sup>234)</sup>

본 논문은 낮은 죽음의 질 때문에 고통받는 한국사회에서 웰다잉을 이해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 때문에 시작하였다. 그러나 죽음은 극히 사적인 경험이며 아울러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실정에서 웰다잉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을 현실에서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죽음 현실을 비교적 잘 드러내는 영화를 통해 웰다잉에 대한 필요와 인식을 도모하고 아울러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이 행복한 죽음 즉 웰 다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버킷 리스트'가 죽음준비교육으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sup>235)</sup> 영화는 과장된 것이고 죽음의 성격이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의 의미를 소멸시킨다는 뜻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긍정심리가 영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죽음을 단지 소멸로 바라보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발생하는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의식이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으며,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결국 가장 가치 있고 의미있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우리가 말기 암 선고를 받은 입장이 아니더라도 언제 죽을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복하게 잘 살 사는(well-being) 사람이 또한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well-dying)법이다. 죽음에 임박해서 후회하기 보다는 다가오는 시간 안에 꼭 해야 할 일을 적어두고 자주 읽으며, 그것을 실현시켜나가기도록 자신을 고양시켜나가는 가운데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성경 곳곳에는 의미있는 버킷 리스트들이 산재해 있다.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234) EIU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 산하기관이며, 최근 언론에서는 한국 사회의 낮은 죽음의 질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젠 '죽음의 질'을 고민하는 사회」, 조선일보 2010년 7월 16일자

235) 최준식, "진정한 죽음준비는 버킷 리스트(Bucket List)에 있지 않다",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46(2010), 1-31.



나라' (살전5:16-18)라는 말씀 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 나 '범사에 감사하기' 같은 버킷 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제목들이 있다. 흥미롭게도 '항상 기뻐하라' 는 버킷 리스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버킷 리스트가 추구하는 목표에도 해당한다. 이것은 기쁨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기도와 감사와 같은 인간내면세계가 자신의 밖을 향해 취하는 자세에 따른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 있다는 사실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고하다면 기쁨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강창균·유영만(2011). 『꼭 이루고 싶은 자신과의 약속 버킷 리스트』. 서울: 한국경제신문  
 김옥라 엮음 (1994). 『왜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한가?』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자료집.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서울: 위즈덤하우스  
 서혜경 (2009). 『노인죽음학개론』. 서울: 경춘사  
 유희옥 (2004). 『중노년기의 죽음 불안태도-내세관 죽음준비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사논문  
 이이정 (2003). 『노인 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논문  
 장경철 (2000). 『생의 최고의 선물』. 서울: 낮은올타리  
 정제걸 (2010). 『삶의 완성을 위한 죽음교육』. 서울:(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최준식 (2010). “긴정한 죽음준비는 버킷 리스트(Bucket List)에 있지 않다”,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46.  
 Byock, Ira(2004). *The Four Things That Matter Most*. 광명단 역(2010)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 안양: 도서출판 물푸레.  
 Christakis, Nicholas A.·Fowler, James H.(2009), *Connected*. 이충호 역(2010), 『행복은 전염된다』, 파주: 김영사  
 Deeken, Alfons.(1996). *SI TO DOU MUKLAUKA* 오진탁 역(2005)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서울: 궁리출판.

Hoggard, Liz.(2005). *How To Be Happy*. 이경아 역(2006) 『행복:영국 BBC 다큐멘터리』 서울: (주)위즈덤하우스  
 Howard, Christopher.(2004). *Turning Passions into Profits*. 김원호 역(2012)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파주: (주)스타일.  
 Joseph, Stephen·Linley, P.Alex (2006), *Connected*, 이훈진·김환·박세란 공역(2010), 『긍정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Lyubomirsky, Sonja. (2007). *The How of Happiness: A Scientific Approach to Getting the Life You Want*. 오혜경 역(2009) 『How to be happy-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서울: 지식노마드  
 Nouwen, Henri J.M.(1994). *Our Greatest Gift : A Meditation on Dying and Caring*. 홍석현 역(2005) 『죽음, 가장 큰 선물』. 서울: 흥성사  
 Nichols, Stephen J.(2006). *Heaven on Earth*. 이용중 역(2007) 『이 땅 위의 천국』. 파주: 살림출판사.  
 Seligman, Martin E.P.(2004).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김인자 역(2011)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안양: 도서출판 물푸레.  
 Shuichi Otsu.(2009) *SHINU TOKINI KOUKAISURU KOTO 25* 황소연 역(2010)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가지』. 파주: 이십일세기북스.  
 \_\_\_\_\_.(2010). *SHUMATSUKI KANJAKARANO 3TTSUNO*. 박선영 역(2011) 『행복한 인생의 세 가지 조건』. 파주: 이십일세기북스.  
 Wyatt, Karen M.(2011). *WHAT REALLY MATTERS: 7 Lessons for Living from the Stories of the Dying*. 이은경 역(2012) 『일주일만 남았다면-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 서울: 도서출판 예문  
 Wedding, Danny·Boyd, Mary Ann(2010), *Movies and Mental Illness, 3rd edition*, 락호완·장문선·구본훈·배대석 역(2012), 『영화와 심리학』, 서울: 학지사